

기고

농어촌 기본소득, 구례의 생존 전략으로

농어촌의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례 역시 예외가 아니며, 소멸 위험지역이라는 현실은 군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지방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법제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칭은 다르더라도 핵심은 농민과 농촌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례도 더 이상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다. 그러나 중앙정부 보조금, 전라남도 매칭 예산, 군 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다양한 조항을 통해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구례만의 특성을 살려 생태관광과 친환경 농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화하고, 양수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발전 기금과 연계하는 전략을 병행한다면 재원 확보의 길은 더욱 넓어진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 수장의 의지와 군의회의 결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구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 구례가 먼저 길을 열어간다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임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고, 의회가 이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한다면,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농촌 기본소득 실험지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구례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대적 의무다. 고품질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때다.

이승욱

전)구례군의회 부의장/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루의 시간은 매우 짧다. 때문에 하루 정도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1개월이라는 성(城)은 보통 30일 내지 31일이 모여서 이뤄진다. 2월은 제외하고, 이러한 1개월이 12번 모이면 1년이 된다. 1년이라는 햇수들이 모여서 20대가 되고, 4.50대의 중년이 되고, 65세 이상의 노년이 된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수명을 다하면 알 수 없는 그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더더욱

서운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서 축적된 현상들이 종교가 아닐까.

수많은 미신들 또한 마찬가지고, 이같은 상념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두려움의 암흑 터널들을 헤매는 현상의 유지 같기도 하다. 그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인생이, 인간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 봐야 100년 정도다. 2009년 UN은 '세계인구고령화보고서'에서 미래 사회를 호모 헉드레드(Homo-Hundred)시대라 했다.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말한다. UN은 2010년 기준 34만 3천 명인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2050년

에는 320만 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할 거라 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24년 12월 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행정안전부). 100세 이상 인구의 경우는 2012년 2,386명이던 것이 2030년 1만 명, 2040년에는 2만 명에 이르게 될 거라 했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지 않을까. 요양원 등에 누워서 그저 호흡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건강과 물질 등을 비롯해 삶의 운영을 위한 요인들이 골고루 갖춰진 상태에서 장수를 누려야 진정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매일 의미 있게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오늘의 이 순간은 내일에도 똑같이 오겠지만 이미 어제의 그 날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만큼 함께하는 순간들과 잘 지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건강에 유념하면서.

쇼펜하우어도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고 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은 어리석다."라고 했다. 이를 유념하면서 현재를 행복하게 지내면 어떨까. 특히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더더욱.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수칙' 준수하자

최근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간이 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맨홀 작업 중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사망 1, 2023년 사망 5·부상 6, 2024년 사망 1명이다.

특히 지난달 기준 올해는 사망 6,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지난

해보다 급증한 거로 집계됐다.

맨홀, 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는 산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성이 커 사전 안전조치 없이 진입하면 의식 상실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맨홀과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자.

첫째,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공기 상태에서 산소 농도 20.9%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채기관이나 줄을 이용해 작업 위치에서 측정해야 한다. 절대 작업자가 직접 내부에 들어가 측정해선 안 된다.

둘째, 진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팬을 이용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

를 공급하되 발전기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호 장비 없이 진입해선 안 되며 작업자가 쓰러진 경우에도 무리하게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맨홀 내부는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로 가득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란 생각으로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음력 8월 3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entry includes a zodiac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advice or prediction.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 (Korea Express) celebrating 50 years of high-speed rail. Features a large hand graphic with a map of Korea and the slogan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